이란 전쟁 나흘째, 장기전 가능성에 시장 변동성 확대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지정학 갈등 전개 양상에 초점을 둔 시장

- 미 증시는 DOW -0.83% S&P500 -0.94% NASDAQ -1.02% 하락. 앞서 아시아, 유럽 증시 약세 영향 장초반 2%대 밀리던 미 증시는 점차 낙폭을 축소하며 -1% 안팎 수준에서 마감
- 섹터별 대부분 업종 하락, 에너지 비용 상승과 차입 부담 확대 우려로 소재/산업재 가장 약세
- 중동 확전 양상에 유가 상승 WTI $75.0(+5.3%), 브렌트유 $82.1(+5.6%), 천연가스 또한 +2.7% 강세
  달러인덱스 99.05(+0.72%). 달러 강세에 금(-4.0%), 은(-7.3%), 구리(-1.9%) 하락으로 소재/채굴기업 약세

이란 전쟁,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

- 시장은 전쟁 자체보다 상황이 얼마나 빨리 종료되는가에 집중. 장기화 가능성, 즉 유가 상방 변수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
- 글로벌IB 전망은 갈리는 편. JP모건 등은 지정학 변동성은 역사적으로 대개 일시적이었다며 과도한 투매 지양 권고. 반면,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등은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며,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 경고
- 이란의 지도부 붕괴상황, 중동 내 참전세력 및 전선지대 확장, IRGC 의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 봉쇄 등은 4 일차에 접어든 전쟁이 진정보다 확전되는 양상
- 한편, 트럼프대통령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으로 밝히며 장후반 유가 상승폭 일부 완화

유가와 관세, 물가에 보다 쏠린 연준의 시선

- 채권금리는 인플레 우려에 따른 상승 지속. 10Y 4.063(+1.2bp) 2Y 3.510(+2.3bp)
- 카시카리 총재는 지정학 상황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어려워졌다고 발언. 현재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, 에너지 가격이 물가의 핵심 사안이라고 언급
- 윌리엄스 총재는 관세 부담의 약 90%가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에 전가되었으며 현재 3% 인플레이션 중 0.5~0.75%p 정도 관세정책이 기여했다고 지적. 다만, 관세 영향은 점차 축소되어 내년까지 물가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특징주: 지정학적 리스크에 부진한 반도체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U	마이크론	-8.0%	한국 반도체주 하락에 연동되며 주가 약세.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또한 공장 운영 비용 부담으로 인식되며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
AMZN	아마존	+0.2%	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중동 지역 내 AWS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손상 및 서비스 장애 발생. 인프라 복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안정성 우려 제기
NEM	뉴몬트	-7.8%	금가격 랠리 중단에 금광 기업 약세. 소재/채굴 기업 전반 약세
TGT	타겟	+6.7%	호실적 및 견조한 연간 가이던스 발표에 주가 강세. CEO는 '26년 매출 성장 복귀를 선언. 베스트바이(+7.1%), 로스스토어즈(-2.3%, 시간 외 +6%대 상승 중)도 호실적 발표하며 주가 강세
PLUG	플러그파워	+23.2%	4분기 영업손실이 시장 예상치 대비 축소된 점과 견조한 연간 가이던스 발표에 주가 강세. CEO는 '28년까지 흑자 전망
BX	블랙스톤	-3.8%	$82B 규모의 대표 사모신용펀드에서 분기 한도(5%)를 초과하는 환매 요청이 발생하며, $1.7B의 순유출 발생. 동사는 환매 한도 상향과 자기자본 투입으로 환매 요청 전량 수용. 시장에서는 사모신용 불안 우려 확산되며 주가 약세